

 한국자활복지개발원		<h1>보도자료</h1> <p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</p>	
배 포 일	2023. 03. 03. 14:00	매 수	총 2매 (사진 1매 별도)
담당부서	일자리사업본부 / 사업개발부	담당자	부장 성연민(02-3415-6930)
			선임 이재웅(02-3415-6937)

한국자활복지개발원, 2023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행기관장 간담회 개최
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원장 정해식, 이하 개발원)은 2월 23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행기관 기관장 등 14명이 참석한 「2023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행기관장 간담회」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행기관 10개소 기관장이 모여 거리노숙인 특화사업 성과공유와 올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,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.
 - ※ 실행기관(10개소):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, 열린복지 디딤센터,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,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,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,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, 햇살보금자리,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, 내일을 여는자활쉼터
-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, 사업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. 실행기관들은 ▲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근거 마련, ▲필요한 자원(인력, 예산), ▲노숙인 인식 개선 홍보 등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거리노숙인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, 해결방안을 모색했다.
- ‘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실행기관장 간담회’는 지난해에 이어 올

해 2회차를 맞이하였다며,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, 개발원, 실행기관(10개소)이 지속적으로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.

- 정해식 개발원 원장은 “사회·경제적 위기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는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애쓰고,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속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위해 노력해주신 실행기관과 관련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”고 격려하였으며,
- “개발원은 현장 눈높이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방향을 수립하여 거리노숙인의 탈노숙과 의미 있는 자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